

# 사목 2022 지침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



진주교 서울대교구

# 2022년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우리 교구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복음화의 여정이 순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가 중단되거나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신앙 교육과 단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과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신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당과 교구의 살림을 걱정하며 성심껏 협조해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명동밥집’과 백신 나눔 등을 통해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2티모 4,2 참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에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합시다. 성경 말씀과 기도, 교회 가르침과 미사 그리고 사랑 실천을 통해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1)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sup>1)</sup>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선포를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 사랑 실천을 통해 주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박해 시대의 우리 신앙 선조들은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적었지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열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박해와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례하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통해 복음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있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형제들”<sup>2)</sup>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2)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넘어선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

---

1) 이 말씀은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사목표어이기도 합니다.

2)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1항.

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다고 하신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황님의 뜻에 일치하여 “공동의 집”<sup>3)</sup>인 지구에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평화를 나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생태적 회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적 회개는 오늘날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sup>4)</sup> 교회는 모든 사목 활동을 통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창조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언어·생각·행동·정보 등의 의식과 감성의 쓰레기도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거리 농산물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무절제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에서도 탈피해야겠습니다.<sup>5)</sup> 아울러 일상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3)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마르 3,35 참조).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행동과 삶의 기준인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을 열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여정에 온 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십니다.<sup>6)</sup>

---

3)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항.

4) 202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참조.

5) 202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에 따른 ‘실천 지침’, 참조.

6)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2021년 5월 20일 공문(Prot. N. 210114).

교회의 ‘함께 걷어가는 여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결합을 드러내고,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아울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열린 마음과 태도의 표징도 됩니다. 순례하며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 걷어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가 복음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와 봉사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제 여러분, 교구장 주교인 저와 일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제들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미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남녀 축성 생활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짙어지며, 외적 활동에 치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 수도자들은 더욱 철저히 자기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와 ‘청빈·정결·순명’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임을 통한 협력, 특히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자들과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자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요한 1,10-11 참조) 세상 안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동행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도록 합시다. 이 믿음의 힘으로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본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 주십시오.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의 작은 신

양의 실천이 복음화의 여정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2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두 사제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올 한 해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다집니다. 복음화되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복음화하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노력은 2031년에 맞이하게 될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1년 대림절에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2022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사목국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평신도 그리스도인』, 36항)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1.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 (1)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하여 신앙의 기초(성경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 사랑 실천)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합시다.
  - (2) ‘성경 통독’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3) ‘가톨릭 서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2. 후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이어주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 (1) 자신의 자녀들 또는 손자녀들에게 축일이나 생일에 성경을 선물합시다.
  - (2)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3) ‘공동합의적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합시다.
3. 자신의 삶의 자리, 삶의 처지에서 자비로운 선교사가 됩시다.
  - (1)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고, 발걸음이 향하고, 손길이 내밀어질 사람과 장소를 찾아가고, 함께합시다.
  - (2) 신앙생활의 열기가 다소 식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따뜻한 관심을 표현합시다.
  - (3) 예비 신자들과 새 영세자들에게 특별히 따뜻한 관심을 표현합시다.

## <행정지원팀>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9항)

따라서 평신도 (사립)단체들과 구성원들은,

1.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 선포의 소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3.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생태 친화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와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

### ■ 일반

1.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를 위해, 봉사자를 위한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목위원과 구역장, 반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여 제공될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및 자료를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구에서 준비하는 ‘성경 통독’ 프로



그럼에 특별히 사목위원과 구역장, 반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가 복음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통독이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미사로 이어져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3. 2022년 구역반장 월례연수는 사목교서에서 언급된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많은 봉사자가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바탕으로 창조 질서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태적 회개를 통해 소공동체 안에서 창조 질서의 수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본당의 수도자들과 협력하여 교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수도자들이 교구의 연수와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선교전례

1. 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본당 중심의 구체적인 선교 운동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예비 신자 교리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과 교구에서 실시 중인 교리 교사 및 나눔 봉사자 양성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후 새 신자들이 신앙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후속 교리 프로그램 등 견진성사까지 체계적인 입문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선교 사명을 재인식하고 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목 활동에 애써 주십시오. 특히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기도와 미사를 통한 사랑 실천을 통해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통하여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례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특히 능동적 미사 참여를 통해 신자들이 주님과 더욱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당 전례 봉사자 및 신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례학교’, ‘성주간 전례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정

1.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본당과 가정의 내적 복음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신앙의 기초인 가정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 가정 내에서 기도와 나눔을 위한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바칠 수 있는 다양한 지향의 기도문과 간단한 축복 예식 등을 모아 마련한 ‘가정기도 매뉴얼’을 활용해 주십시오. 특별히 6월에 진행되는 제10차 세계가정대회를 맞아 가정교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최되는 정규 온라인 혼인교리 교육을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아울러 혼인교리 현장 교육과 주말 신청 프로그램인 ‘약혼자 주말’, 본당 파견 프로그램인 ‘아버지 여정’도 상황에 맞추어 재개될 때 적극 활용 해 주십시오.
4. 모든 신자 가정 공동체가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목국에서 마련한 여러 사목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개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사목팀>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인들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또한 젊은이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래서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2020년 1월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가 주관한 노인사목 관련 국제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1. 노인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앙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받는 노인’에서 ‘주는 시니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인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노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영성나눔교재)」, 「창세기·탈출기 성경문제집」을 보급하였고 「성경쓰기 + 컬러링북」, 「4복음서 성경문제집」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 형태의 월 교재를 제작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당에 오지 못하는 노인 신자들에게도 교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 시니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세대의 부모들 다수는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양성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어린 손자녀들을 둔 조부모들인 영 시니어들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신앙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오니 잘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사목팀>

직장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복음화되어, 직장 안에서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다음의 실천 사항을 권고합니다.

1.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의 생활이 교회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잘 알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과 교육 행사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도가 필요한 교우를 위해서 직장교우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3. 직장 안에서의 복음화를 위해 신앙의 기초(성경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 사랑 실천)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합니다.
4.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권고하는 성경 통독 여정에 적극 참여하여 신앙의 기틀을 강화합니다.
5. ‘가톨릭 서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일치를 다집니다.
6.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함께 하기 위해, ‘생태적 회개’ 실천 사항(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근거리 농산물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 무절제한 소비주의 지양 등)들을 적극 실천 합니다.
7. 교우회 모임 시 성경 읽기와 나눔 및 ‘가톨릭직장인’ 월보를 통한 나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장인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직장사목팀에서 주관하는 피정과 성지순례 및 신앙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직장생활의 의미 있는 쉼터를 찾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9. 격년으로 진행되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에 많은 예비 신자들과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서못자리>

1. 신앙의 원천인 하느님 말씀  
본당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이자 계시와 신앙의 원천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끔 이끌어주십시오.
2. 말씀을 읽고 실행하는 신앙인  
교우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당 내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있다면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십시오.
3.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활용  
서울대교구 공식 성서 사도직 프로그램들인 '성서못자리'와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가톨릭 성서모임', '성서 백주간', '여정 성서모임', '베네딕도 성서학교', '바오로 성서모임',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 <가톨릭청년성서모임>

1. 청년 신자들이 속해 있는 본당, 대학, 직장 안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미사 전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가톨릭청년성서모임 50주년을 맞이하여 주제성구인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말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의 주일 복음과 독서 말씀의 묵상나눔인 ‘보듬술’을 읽고 한 주간 주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 신자들이 73권의 신구약성경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독려하고, 미사 참례와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를 이루는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본당, 대학, 직장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합니다.

###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은 신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발견하고 그에 응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성심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가톨릭상담심리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데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 청소년국

교구장님께서 2022년 사목교서에서 강조하신 세 가지 소주제에 따라 청소년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잠시 공동체 내부로 돌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목의 시스템이 확장되고 견고해지면서 점점 예전의 방식들을 답습만 하게 되고 달라진 사회 환경과 심리 현상,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 현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규모 집체 교육식의 양성을 지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내실있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양성해가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국에서도 활동가들을 한 곳에 모아 직접 교육을 시키는 방법보다는 각 본당에서 사목자들이 자신의 협조자들을 양성하는 역량과 방법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직원, 봉사자들이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 지 점검하고 말씀과 성사를 통해 사목의 협력자로서 복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쉼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각 본당이나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서는 솔선수범에 동참하도록 권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대면 연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태적 활동을 마일리지화하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격려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모 사목에 도입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위원회에서 2021년 6월 14일 배포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본당 활동 안내서’의 내용을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모들과 함께 읽어보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국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목자들과 협력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목에 관해 논의하기를 권합니다. 사목자들은 본당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도자들과 봉사자들, 협력자들이 활동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식별의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들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그들을 양성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반드시 딱딱한 회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교류나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들이 피교육자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협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청소년국에서도 가능한 한 일선의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협력자들, 봉사자, 활동가들, 청소년,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함께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아부>

“성당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강론이다.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주님 세례 축일 유아세례 강론 중)

1. 영유아 신앙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의 신앙적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전례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가정에서의 신앙적 행위란 매일 기도하기와 성경 읽기, 각종 성물의 노출, 전례 시기에 맞춘 꾸미기와 복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3. 교회 공동체는 영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신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들이 유아 방에서 나와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함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목자의 배려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교우들이 영유아들의 울음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4. 이로써 복음의 기쁨이 영유아 부모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신앙교육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사목교서의 방향에 맞추어, 본당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사 때 분심(分心)이 든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본당 공동체원 모두가 일치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하자는 교구장님의 말씀처럼, 초등부 어린이들이 신앙의 내용(성경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신앙의 습관(미사와 기도)을 잘 들어서 신앙의 실천(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일학교 지원을 위해 초등부 홈페이지([www.chota.or.kr](http://www.chota.or.kr))에 교리 교안 자료와 첫영성체 교리 자료를 업로드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 유튜브에도 자료를 업로드하오니 이를 본당에서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신앙의

내용을 배우고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본당의 어린이들이 미사와 기도예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대면 미사와 함께 온라인 미사를 활용해 주시고, 어린이들과 교리 교사 및 봉사자들이 본당 공동체와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가톨릭스카우트>

스카우트는 유능하고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국가적 운동으로서 인종·계급·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 청소년 육성 사회운동입니다. 가톨릭스카우트는 이런 스카우트 정신에 더해 청소년 신앙과 가정 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느끼고, 청소년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며, 각종 기능 활동을 통해 지도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잠재력을 계발하는 인간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스카우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성장과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키워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중고등부>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졌던 청소년공동체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요. 사목자와 봉사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시요. 그러기 위해 청소년동반자(교사) 봉사자들은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청소년담당 사제는 청소년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청소년 영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요.

## <학교사목부>

학교사목부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사목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작한 가톨릭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셀 방법론으로 만든 ‘뽕’교재를 본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로 청소년들을 찾아나서는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연계하고자 하오니, 잃어버린 어린양을 찾아나서는 마음으로 관할구역 내 학교에도 사목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부>

청년들의 공동체 또한 복음의 기쁨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전해 받은 복음을 전해 주는’(1코린 15,3 참조) 모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물질만능주의와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어디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느님의 증인들과 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줍시다.

청년들이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함께하신다.’ 이 세 가지를 떠올리고 스스로 되새기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사목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캠퍼스 사도로서의 학생 신앙 운동

대학교사목부는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내 신앙인들이 지역 본당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되고, 교내 신앙 공동체의 원동력을 회복해가면서 캠퍼스 내에서 복음화를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1. 캠퍼스 공동체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기

본당 사목자들과 대학 내 가톨릭공동체의 교류를 통해 복음화 운동을 활성화시켜, 특히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양성하겠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신앙 활동 계획을, 이를테면 공동체 성경 읽기와 기도, 봉사 신앙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생을 위한 성시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유하여 성체 신심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영적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 2. 함께 걸어가는 지역 본당과 대학 공동체

지난 2년간 서울지역의 대부분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생활이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대학에서 대면 형태의 일상생활이 악화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 상호간의 공식적인 만남이 금지된 환경에서 동아리 활동도 위축되어 신입생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대학교사목부는 학생 유대 관계 활동도 할 수 없고, 신앙 활동이 위축된 대학 신앙 공동체에 대한 존속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인근 본당과 연계하고 대학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올해 대학교사목부는 이렇게 마련된 본당과 대학 내 가톨릭 공동체의 연계를 더

욱 공고히 하여 본당이 지역사회의 선교 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 본당과 본당 사목지 내 대학의 양쪽 상황과 환경을 바탕으로 대학 내 복음  
화 흐름을 구축하기 위한 연락을 취해 각 지역 본당의 사목자와 논의를 이루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구조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 문화홍보국

### <주보편집팀>

1. 전례 자료, 복음 묵상과 신앙 나눔, 교구의 여러 소식 등이 담겨있는 서울주보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뜻으로 신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서울주보는  
2022년 사목교서에 따라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  
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쇄물 외에도 모바일을 통해 신자들과 소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  
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느님  
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팀>

1.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생활과 기쁘게 사는 삶의 증거로 이웃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 강좌와 인문학 강좌는 물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들을 활용한 교육과 피정,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가톨릭 문화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리 상식, 교회사, 주보 필진 인터뷰, 문학 등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톨릭 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관심과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명동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로 자리 잡힌 ‘명동, 겨울을 밝히다’를 올해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성탄의 의미를 찾으며 기쁨을 누리는 장으로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일부 진행하면서도,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구성을 취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인들의 마음에서만 아니라, 명동을 찾는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꽃필 수 있길 희망하며, 축제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문화와 풍습이 전 사회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4.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문화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언론인들의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도움을 지속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굿뉴스팀>

1.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를 통해 신앙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소통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말씀에 따라 코로나로 힘든 이때 사이버 공간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선교봉사국

### 1. 해외선교봉사국의 목적(존재 이유)

해외선교봉사국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해외선교봉사국을 설치하여 나눔이 필요한 교회에 사제들을 파견하고(Fidei Donum) 신앙을 나눔으로써 보편교회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대륙)는 사제의 부족으로 심지어 한 신부님이 공소 50개를 담당하는 지역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1세계라고 칭할 수 있는 유럽, 북미주, 호주, 일본 등의 대륙도 사제가 부족하여 본당이 공소화 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역교회에서 한국교회에 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모범적으로 살아 성소가 끊이지 않고 사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사제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 사제의 존재 자체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경험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많은 사제가 선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온 세상 곳곳에 가서 다양한 교회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과 나라를 보다 선명하게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현존은 너무나 강렬하여 하느님 사랑에 온전히 승복하게 합니다. 이는 커다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경험을 통해 서울대교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사제와 신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 2. 해외선교는 사제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선교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평신도들이 해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3. 서울대교구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중심이며 물질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서울대교구민들은 먼저 해외 선교가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본당에서 선교를 지향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외방 선교에 도움을 주고자 물질적인 지원도 아낌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측은히 여기시어 빵의 기적을 이루어 장정만도 오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마태 14,21) 외방 선교를 통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봉사할 나눔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 2022년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말씀을 간직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사람뿐 아니라 온갖 피조물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보존하도록 사제와 신자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선교 여정을 시작합니다.

5. 코로나19 상황 속에 절대적 가난과 고통을 당하는 선교지역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해외선교봉사국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역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는 영적인 노력과 물질적인 도움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현재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선교 중인 지역과 명단(2021년 9월 기준)

번호	파견국가	지 역	파견 사제
1	과테말라	산티아고	김현진
2		산티아고	한상현



번호	파견국가	지 역	파견 사제
3	대만	타이중	임창재
4		신주	김재원
5	독일	뮌헨-프라이징	신정훈
6	멕시코	후아레즈	최우주
7	미국	알래스카 주노	민경일
8		워싱턴	박민서
9	스페인	마드리드	고가람
10	일본	도쿄	이종안
11		오사카	김태근
12		요코하마	김윤복
13		후쿠오카	신광수
14		삿포로	박민우
15		도쿄	김필중
16		오사카	안민우
17		후쿠오카	김성천
18	칠레	산티아고	정성훈
19		이키케	이현규
20	콜롬비아	보고타	양 호
21		보고타	박형문
22	페루	리마	양용석
23	프랑스	뤼송	이광희

## 사회사목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복음화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한다.’(예레 1,7)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변화하는 상황들과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를 향한 이 새로운 출발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0항)

“복음이 제안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루카 4,43 참조). 이는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그만큼, 사회생활은 보편적인 형제애, 정의, 평화, 존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선포와 삶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 180항)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회개,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정의를 향한 마음의 회개로 초대한다. 그 정의는 특히 가난한 이, 억눌린 이, 외국인에 대한 것이며 주님의 자비를 눈에 보이게 증언하는 것이다(예레 37,21; 38,1 참조).”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4항)

### <정의평화위원회>

1. 예수님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이웃사랑과 평화 실현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2.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관련 활동 단체를 지원하거나 법·제도 개선에 지지합니다.
  - 과도한 국방비 증가는 문제가 있으며 군축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315항 / 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53항 참조)
  -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288항, 2211항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40항 참조)
  -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 17항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69항 참조)

## <경찰사목위원회>

1.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중요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출동과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따른 스트레스로 오히려 자신들을 돌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경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에 힘써주시고, 경찰들을 조금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앙생활 유지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경찰 내 그리스도인들이, 지치지 않는 믿음과 희망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영적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동체의 복음화를 통해 참된 경찰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된 경찰은 사회 복음화를 앞당깁니다.
3. 경찰과 유치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선교사의 양성과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써주시고,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참된 복음의 기쁨을 증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사목위원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함은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며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조차 유지할 수 없는 약자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감염의 두려움도 무릅쓰고 돌봄 노동을 행하는 이들도 기억합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과 거리두기로 어려운 시기에도 이들을 직접 만나서 행하는 작은 몸짓은 애덕 실천의 또 다른 모습

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돌봄 노동은 공동체안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할입니다.

돌봄의 문화가 온 사회에 스며들도록 장려합니다. 이 사회적 역동성 안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영성에 속하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이 성숙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231항)

### <노인복지위원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 동안 본당에서 해오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이나 방문의 횟수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동안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 특히 독거노인들은 그나마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마저도 단절될만큼 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형제들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2022년 사목교서의 교구장님의 말씀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홀로 고립될 위험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게 본당 공동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본당 공동체가 보여주는 관심은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단중독사목위원회>

모든 중독자와 가족 공동체가 하느님의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탈중독을 실천하고

유지함으로써 전인적 건강회복을 통해 복음화 되고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본당 · 지역 및 지구 공동체에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선포함으로써 ‘복음화하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거듭 뉘어지도록 노력한다.

###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후유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깊고 폭넓은 연구와 함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사목 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코로나블루(CORONA BLUE)’를 겪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 중 특히 현실적인 문제(실직, 폐업, 상해 혹은 사망)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우울, 중독 심화, 가정 붕괴, 범죄, 자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직접 운영하는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은 연구와 연대활동을 통해 교회의 본당과 신자 가정에 중독 피해에 관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방효과를 증대하고자 ‘전문가에 의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안내 상담, 중독자의 치료병원, 회복을 위한 재활(남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의 모든 임직원은 온 교회와 함께 모든 가정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키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병원사목위원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영적 돌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대면 형식의 영적 돌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복음적 삶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빈민사목위원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이들 가운데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빈민사목위원회에서는 특히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소위 홈리스라 불리는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 고시원, 지하실,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주거의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 가난한 이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 없는 이들의 지붕이 되어 줄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대학동 고시촌에 중장년 1인가구 주민들을 위한 ‘참소중한...’ 센터를 개설하여 ‘소행모(소소한 행복을 찾는 모임)’라는 주민조직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등에게 자립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같은 경우 현재 토지건물주들의 반발로 국가 주도의 공공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쪽방촌 주민들과 연대하여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만이 아닌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사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쁨 소식인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2022년 사목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용시설에 갇힌 수용자, 그리고 그 가족들, 출소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출소자들, 범죄로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히, 가족이 교정시설에 갇혀 있다는 정신적인 아픔과 함께 생계문제로 버거워하는 수용자 가족들, 그리고 사회로 나왔지만, 막상 생계를 잇기 어려운 출소자들에게는 지금의 현실은 다른 여느 때와는 달리 더욱 넘기 어려운 큰 벽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희망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손을 잡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3.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 넘어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봉사하는 교정봉사자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하시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격려해주시며,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회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형제들”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사목교서 중에서)

1. 우리 곁에는 교회 공동체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인, 폭력피해여성 및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부모가정 등이 존재하며,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와 교육, 의료, 생계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당 관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노숙인, 미혼모 가정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들을 열린 마음과 수용적 태도로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본당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 내 복음화(사랑실천)를 활성화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작성 배포한, ‘본당 사회복지사목 매뉴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매뉴얼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지역(지구/본당) 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은 지역내 지구 및 본당과 함께 연대·협력하여, 본당 관할 내 소외된 이웃(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 가정, 중장년 독거남성 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나눔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합니다.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1. 생태적 회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지난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라고 선언하며, ‘생태적 회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목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행위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미사 강론이나 특강 등 다양한 복음화의 기회를 통해서 신자들의 생태적 회개와 실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가꾸고 보존하며 후손에게 전하는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2. 본당 내에 평신도단체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먹을거리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평신도단체로서, 쓰고 버리는 생활 속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조금은 불편하게,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생태적인 생활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곧 복음화의 여정을 증거하는 일이요,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합의적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본당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밥상’ 차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의 먹을거리를 땅에서 얻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먹을거리는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인스턴트 식품, 유전자조작식품이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당의 다양한 밥상(주일학교 간식, 노인대학 식사, 주일 국수 나눔, 본당의 날 행사 등)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지원, 감사선물 등은 우리 땅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을거리로 마련하여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 우리농회원이 되어 올바른 음식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만 6천톤(연간 약 570만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기후 위기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쓰고 버리는 ‘무절제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을 탈피하여 올바른 음식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수입농산물 보다는 우리 땅에서 제철에 자라고, 오랜 세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먹을거리를 알맞게 나누는 것은 생명농업실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 <이주사목위원회>

사목교서에서 교구장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넘어 세상 곳곳에,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1년 주님부활대축일 메시지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돕는 것이 각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교구장님과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기 위해 믿음·희망·사랑의 향주삼덕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인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의 마음을 바꾸어, 환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외국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신앙과 교회 활동의 힘의 원천인 미사에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대하여 주시고, 이주민의 특성상 먼저 교회를 찾기 힘든 어려움을 배려하시어 구역, 반에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교회의 작은 공간일지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교회는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형제들”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략)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걷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행동과 삶의 기준인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을 열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공동합의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2022년 사목교서 중)

사목교서에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형제가 되어주고 사랑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환경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이를 넘어 공동의 집 지구와 형제적 연대를 맺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속에서 얻은 교훈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이웃과의 연대의 힘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된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며, ‘운동본부’라는 근본을 다시 세우고 후원자를 중심으로 성체성사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여 사회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국내와 국외 그리고 이제는 공동의 집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실천들을 제시하오니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1. 명동밥집센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형제들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동밥집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함께 걷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인 노숙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눔과 봉사로서 실천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한 끼의 식사와 기쁨, 희망, 위로를 주는 것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제협력센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의 집,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 이를 위해 각 본당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의 집, 지구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빈곤과 질병, 특히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헌미헌금(5월, 9월) 운동, 그리고 지구시민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생명운동센터

생명나눔은 성체성사의 정신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는 숭고한 행위이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현저하게 감소시켜 생명나눔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본당 교우들이 생명의 복음 선포자로서 형제들의 고통을 돌볼 수 있도록 본당에서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살예방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앞으로 본당 내 많은 우리의 형제, 이웃들의 마음돌봄 및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본당안에서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확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자! 생명으로! (가톨릭 자살예방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또한 자살유가족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돌봄이 본당 내에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월 유가족을 위한 미사와 정기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한 지원이 있으실 경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8-3079)

#### 5. 운영지원센터

본부는 생애주기별기부, 유산기부, 고액기부, 나눔가게·나눔기업 등의 다양한 기부방법을 통하여 나눔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들이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보호에 본부가 먼저 실천하고 신자들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본부가 제공하는 견진교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의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뉴미디어(유튜브, SNS 등)를 통해 본부가 우리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믿음,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므로, 본당에서도 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목위원회>

1.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목표 실현을 위해 기존에 해 오던 창조질서보전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2020년에 발표된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특히,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생태 영성을 기도와 일상생활 안에서 실현하는 데 노력합니다.
2.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쓰레기 등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 본당, 교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이 영(제로)이 되는 탄소중립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 교구 공동체가 사용하는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설치합니다.

4. 본당 사목평의회에 생태환경분과를 맡을 사목위원을 두고, 평신도생태사도직단체 ‘하늘땅물벗’을 조직하여, 본당 구성원 모두가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5. 교구 구성원 모두를 위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6.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수록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등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마련된 기도문을 공동체 안에서 자주 바치고, 공동체 미사 중에 기후 위기로 고통 받는 피조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주 기도합니다.
7. 공동의 집 지구를 보호하는 일은 신앙인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의식하며, 교구의 구성원 모두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 제정,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산업 구조 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압박하는 목소리를 냅시다.

##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에서는 2022년 우리 교구의 사목방침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에 따라 사목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당생명분과’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회칙 생명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당생명분과 위원들은 먼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화되고 그 정신에 따라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봉사자’들이며, 사랑의 봉사와 생명의 문화를 통해 세상을 복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당 내에서 이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생명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반드시 생명분과, 가정생명분과, 환경생명분과를 설치하거나, ‘생명수호담당자’를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당생명분과의 생명수호활동은 제 분과 및 단체들과 「함께 하는 사목활동」입니다. 각 본 당에서는 제 분과 및 단체들도 본당생명분과와 함께 생명수호활동에 동참하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당생명분과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교육과 활동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내에서도 교우들을 위한 생명교육을 기회있을 때 마다 시행해주시기 바라며,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여러 기회의 강론을 통해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당생명분과위원들을 위한 양성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내 생명교육 : 사순, 대림시기 특강, 견진성사준비교육, 생명주일 강론, 생명특강(노인대학, 자모회 등)

- 본당 생명분과위원 교육

: 정기연수(연 1회 의무참석) 및 생명 관련 세미나 참석,

꿈꾸는 생명교실(상반기 : 「인간생명」 및 「가정공동체」 연구,

하반기 : 회직 「생명의 복음」 연구)

-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10주) 및 심화과정 수강

- 모든 신자들을 위한 「참 생명학교」 기초과정(8주) 및 심화과정(10주) 수강

-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읽기 및 필사 운동

- 생명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모바일 성경쓰기(가톨릭 굿뉴스 주관)

- 생명 관련 cpbc가톨릭평화방송 TV프로그램 시청, 라디오 청취하기

3. 본당생명분과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봄으로서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사목활동」입니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생명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을 각 가정과 본당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와 전례 그리고 생명존중행사 등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 생명수호주일 생명미사(12월 첫째 주일에 교구 전체) 및 개별 생명미사 봉헌, 임신부 및 태아 축복미사, 난임부부를 위한 축복식
  - 가정과 본당에서의 기도운동 : ‘생명을 잉태한 가정과 병자들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 (과달루페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운동)
  - 행사 : “생명대행진”, “생명수호체험수기 공모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 돌봄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혹은 매일 안부전화, 병자방문
  - 나눔 : 생명나눔(제대혈 기증, 장기기증, 시신기증, 조혈모세포 기금, 헌혈 등)에 참여하기
4. 생명위원회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생명」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주기법’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행복한 가정운동’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운동’에서 주관하는 자연주기법(NFP) 교육은 가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시대의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가임기 교우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격적 성교육이며 자연주기법(NFP)을 기초로 한 성·생명·사랑 교육인 ‘틴스타’ 프로그램에도 본당의 청소년·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본당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임의 고통 속에 있는 부부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가톨릭적 난임극복 프로그램인 ‘나프로 임신법’을 교우들과 난임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낸 미혼부모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모 후원을 위한 기금 모금과 수혜자 추천에도 필요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6. 2022년부터 그동안 교구 사목국에서 담당하던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희망으로 가는 길”을 생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에 열리며, 상담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낙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아기와 화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고해성사와 미사 참



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7. 이 프로그램 외에도 본당 교우들이 개별적으로 “곤경이나 부적응, 병이나 거부 등의 여건들 때문에 생명이 도전을 받는 경우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단체들, 미성년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거주 공동체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대한 에이즈 협회”등 (생명의 복음 88항 참조) 다양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내 >

- 2022년 사목지침서의 「사목교서 및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은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http://aos.catholic.or.kr/>) → ‘간행물’ → ‘**사목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목 지침에 따른 「부서별 사목 목표 및 계획」은 **부서별 사목 목표 및 계획**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